

전북도민체육대회 '대단원' 체전 키워드 '안전'

2개월동안 도내 곳곳서

전주시, 8개종목서 1위

전북도민체육대회가 2개월 간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0월 까지 두달 간 도내 일원에서 분산 개최 된 제 58회 전북도민체육대회가 철저한 방역 속 안전하게 치러졌다.

이번 도민체전은 당초 익산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고려해 '방역'을 최우선으로 개·폐회식과 종합시상은 생략하고 도내 각 시군에서 35개 종목이 나뉘

펼쳐졌다.

전 종목 무관중 경기와 더불어 종합순위 대신 종목별 순위만 책정하는 이번 도민체전에서 전주시가 8개 종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완주군이 6개 종목에서 익산시가 5개 종목에서 1위를 했고 군산시와 진안군 순창군이 3개 종목에서 정상에 올랐다.

아울러 김제시와 부안군은 2개 종목에서, 정읍시와 남원시, 임실군은 1개 종목에서 1위에 올랐다.

특히 이번 도민체전에서 시군 대표 선수와 관계자 등 단 한 건의 코로나 감염이 없었음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치러졌다.

한편 내년엔 열리는 제59회 전북도민체육전은 남원시 일원에서 열린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민체육대회 마라톤 경기 현장

(사진=전라북도체육회 제공)

남자 프로농구, 올 시즌 정규리그 관중 입장 확대

정부 방역지침 완화 따라

오늘 전주KCC 경기부터

남자 프로농구가 2021~2022시즌 정규리그 관중 입장을 확대했다.

KBL은 1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지침에 2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전주 KCC-창원 LG 경기부터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올 경기장 수용 좌석 대비 원주 DB는 50%, 서울 삼성은 45%, 서울 SK는 47%(백신 접종자 구역 1층 150석 포함), 창원 LG는 49%(백신 접

종자 구역 1층 32석 포함), 고양 오리온은 43%, 울산 현대모비스는 40%가 입장 가능하다.

안양 KCC인삼공사, 수원 KT,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50%까지 확대하고, 전주 KCC는 전석을 백신 접종자 구역으로 정해 100% 입장을 결정했다.

SK, LG, KCC 홈 경기장의 백신 접종자 구역 좌석 이용사에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미성년, 의사 소견서를 통해 방역 당국으로부터 접종 불가자로 인정받은 관중만 출입 가능하다. /뉴시스

"내년 6월엔 좀 더 경쟁력 있는 팀 만들겠다"

'첫 출항 성공' 황선홍 AFC U-23 감독

아시아컵 예선서 3전 전승 · 조 1위로 본선행

성공적인 첫 출항을 일린 황선홍호가 내년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아컵에서 경쟁력 있는 팀으로 거듭나겠다고 자신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축구대표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의 질란베사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AFC U-23 아시아컵 예선 H조 3차전에서 싱가포르를 5-1로 대파했다.

필리핀(3-0 승), 동티모르(6-0 승)에 이어 싱가포르까지 제압한 한국은 3전 전승으로 조 1위를 확정하고 내년 6월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하는 대회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황선홍호는 3경기에서 14득점 1실점으로 상대 팀들을 압도했다.

2020년 태국 대회에서 정상에 섰던 한국은 내년 우즈베키스탄 대회에서 2연패에 도전한다.

U-23 사령탑 데뷔 무대에서 전승을 거둔 황 감독은 경기 후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선수들, 코치진 지원 스태프들이 같은 마음으로 준비했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막 대표팀을 맡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단계"라면서 "이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팀을 더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내년 6월엔 좀 더 경쟁력 있는 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짧은 준비 기간에도 성공적으로 팀을 이끌 한 감독은 "같은 방향으로 가지고 콘셉트를 정하고 시작했는데 선수와 스태프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고 대회에 임한 게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도감을 많이 생각했다. 짧은 시간에도 전환의 속도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보완할 점에 대해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너무 서두르기보다 하나씩 차분하게 팀을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전에서 대회 첫 실점을 내준 것에 대해서도 "워낙 좋은 슈팅이라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황 감독은 내년 대회 본선을 앞두고 선수 풀에 대한 윤곽을 잡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조직이나 여러 측면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한다. 일단 모든 선수를 파악해서 인재 풀을 구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전 최우수선수로 뽑힌 미드필더 고재현(서울이랜드)은 "예선 마지막 경기였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다. 감독님이 빠른 속도와 전환을 추구하신다. 그에 부합하는 축구를 하기 위해 선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풀타임을 뒀 고재현은 팀이 1-0으로 앞선 전반 6분 조상준(수원FC)의 추가골을 도왔다. /뉴시스

우석대 사격부, 전국대회 대거 입상

회장기 대회에서 금 1 · 동 4

봉황기서 금 2 · 은 1 · 동 5

우석대학교 사격부가 제37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와 제51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에서 금 3개 · 은 1개 · 동 9개 등 13개의 메달을 대거 수확했다.

이 대학 사격부는 김예진 · 김나현 · 김민영(스포츠지도학과 1년) · 류연주(광고홍보이벤트학과 1년) 선수가 여대부 10m 공기권총 단체전 동메달을 시작으로 스포츠지도학과 공성빈(4년) · 김지훈(4년) · 박진석(3년) · 황준영(2년) 선수가 남대부 50m 3자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공성빈 선수가 남대부 50m 3자 개인전 동메달과 조서현(체육학과 4년) · 김정연(스포츠지도학과 1년) · 조단비(항공서비스학과 1년) · 천세영(광고홍보이벤트학과 1년) 선수가 여대부 50m 복사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 남대부 25m 센터파이어 권총 단체전에서 김민찬(스포츠지도학과 4년) · 안영준(항공서비스학과 1년) · 김동환(에너지전자공학과 1년)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다.

제51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에서도 공성빈 · 김지훈 · 박진석 · 황준영 선수가 남대부 10m 공기소총 단체전 은메달을, 류민(체육학과 3년) · 김나현 · 김예진 · 류연주 선수가 여대부 10m 공기권총 단체전 동메달을, 조서현 · 김정



우석대학교 사격부가 제37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와 제51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에서 금 3개 · 은 1개 · 동 9개 등 13개의 메달을 대거 수확했다. (사진=우석대학교 사격부 제공)

연 · 조단비 · 천세영 선수가 여대부 10m 공기소총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대부 50m 복사 단체전에서 공성빈 · 김지훈 · 박진석 · 황준영 선수가 금메달을, 남대부 50m 복사 개인전에서도 공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여대부 50m 복사 단체전에서 조서현 · 김정연 · 조단비 · 천세영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대부 50m 3자에 단체전에서 공성빈 ·

김지훈 · 박진석 선수가 동메달을, 여대부 50m 복사 단체전에서 조서현 · 김정연 · 조단비 · 천세영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다.

김성민 감독은 "집중력과 정신력을 중심에 둔 훈련을 해 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펼친 것 같다"며 "앞으로 있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